

# 경덕왕[景德王]

## 한화정책(漢化政策)을 통해 왕권 강화 화를 꾀하다

미상 ~ 765년(경덕왕 24)



성덕대왕신종

/ 국가문화유산포털(문화재청) /

### 1 개요

경덕왕(景德王, ?~765)은 신라 제35대 왕으로 재위 기간은 742년~765년 이다. 그는 태종무열왕(太宗武烈王) 직계가 왕위를 계승하면서 강력한 왕권 중심의 정치 형태를 지향한 통일신라 중대(中代)의 마지막 전성기를 구현한 왕으로, 적극적인 한화정책(漢化政策)을 추진하면서 왕권 강화와 관료제 확충을 꾀하였다.

### 2 생애와 가계

경덕왕의 본명은 김헌영(金憲英)으로 제33대 성덕왕(聖德王)과 점물왕후(占勿王后)로도 불리는 소덕왕후 김씨(昭德王后 金氏)의 셋째 아들이며, 제34대 효성왕(孝成王)의 친동생이다. 739년(효성왕 3) 2월에 신라 17관등 중 네 번째인 파진찬(波珍滄)이 되었고, 바로 이어 5월에 태자(太子)로 책봉되었다. 742년 5월 친형인 효성왕이 사망하자 왕위를 이었다. [관련사료](#)

그에게는 원래 삼모부인(三毛夫人)이라는 아내가 있었지만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폐하고, 743년(경덕왕 2) 4월에 서불한(舒弗邯) 김의충(金義忠)의 딸 만월부인(滿月夫人)을 새로운 왕후로 맞이하였다. [관련사료](#) 그가 왕의 동생으로서 태자에 책봉되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유력한 진골귀족들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으로 여겨지는데, 그의 첫 왕후 삼모부인의 부친인 이찬 김순정(金順貞)이 그 중심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. 새로운 왕후를 맞아들인 것은 즉위 초 측근 진골귀족들과 결별하며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. 만월부인과의 사이에서 후에 혜공왕(惠恭王)으로 즉위하는 태자 김건운(金乾運)을 낳았다. [관련사료](#)

그는 재위 24년만인 765년 6월 사망하여 모지사(毛祇寺) 서쪽 봉우리에 묻혔다고 기록되어 있다. 『삼국유사(三國遺事)』 「왕력(王曆)」에는 경지사(頃只寺)의 서쪽 봉우리에 장사지내고 돌을 다듬어 능을 만들었으나 나중에 양장국 안에 옮겨 장사지냈다고 보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. [관련사료](#) 현재 사적 제23호로 지정되어 있는 경주 경덕왕릉(慶州 景德王陵)을 그 무덤으로 보고 있다. 한편 중국의 사서인 『구당서(舊唐書)』, 『자치통감(資治通鑑)』 등에는 경덕왕이 737년 사망했다고 되어 있어 우리 측 기록과 차이가 있다.